

경남도민일보

2002년 9월 13일 금요일

음력 8월 7일



12일 일본 참의원들이 경남도를 방문해 도지사에게 '한일 해저터널' 건설협조를 요청했다.

일 '해저터널' 성사 요청

참의원, 경남도 방문 거제통과 협조 당부

일본 참의원들이 12일 경남도를 방문, 김혁규 도지사에게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 노자와 다이조 의원 등 일본 참의원 5명은 김 지사를 방문, "거제도와 대한해협을 거쳐 일본 규슈를 연결할 한일터널 건설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한일터널 건설 논의는 지난해 11월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 주룽지 중국 총리 등 3국 정상이 합의한 경제장관회의 및 비즈니스포럼 창설안 등 5개항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이에 앞서 2000년에는 한일 의원연맹에서도 해저터널 건설논의가 제기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 수립된 3차 도 건설종합계획에서 한일 해저터널을 건설할 경우

거제에 국내 환승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 아래 주변 철도망 건설계획을 세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정부는 지난 4월 한일터널에 대한 첫 타당성 검토작업을 교통개발연구원과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한 바 있으며, 터널이 건설될 경우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도버해협의 터널(50km)은 물론,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를 잇는 세이칸 터널(53.9km)보다 훨씬 긴 총길이 200km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해저터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도로과 관계자는 "해저터널은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지만, 거제를 통과한다는 기본안에 따라 협조요청 차원에서 경남도를 방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wan@dominilbo.com

慶南道民日報 2002年9月13日

日本が“海底トンネル”の実現を要請

参議院、慶南道を訪問、巨済島を通過、協力を要請

日本の参議院らが12日、慶南道を訪問、金赫珪道知事に“韓日海底トンネル”建設の協力を強く要請した。

この日、午前9時30分、野沢太三議員ら日本の参議院5名は金知事を訪問、“巨済島と大韓海峡を経て日本の九州を結ぶ韓日トンネル建設に対し、慶南道は積極的に協力して欲しい”と依頼した。

韓日トンネル建設の議論は昨年11月、金大中大統領と小泉純一郎日本総理、朱鎭基中国総理など3カ国首脳が協議した経済長官会議およびビジネスプラン創設案など5項目に含まれている内容である。これに先立って2000年には韓日議員連盟でも海底トンネル建設論議が提起されており、昨年8月に成立した第3次道建設総合計画で、韓日海底トンネルを建設する場合、巨済に国内乗換センターを設置する方針のもとに周辺の鉄道網建設計画をたてる、という内容がふくまれている。

さらに政府は去る4月、韓日トンネルに対する初の妥当性検討作業を交通開発研究院と国土研究院などに依頼しており、トンネルが建設された場合、英国とフランスを結ぶドーバー海峡のトンネル(50Km)は勿論、日本の本州と北海道を結ぶ青函トンネル(53.9Km)より遥かに長い総延長200Kmに達する世界最長の海底トンネルになるものとみられる。

慶南道の道路課関係者は“海底トンネルはいずれにせよ政府次元で推進されるべきものであるが、巨済を通過するという基本案に沿って協力を要請するとの考えから慶南道を訪問したものとみられる”と語った。

※ 写真の説明

12日、日本の参議院らが慶南道を訪問し、道知事に“韓日トンネル”建設協力を要請した。